

## 연차 대회에 다녀와서



한국 지역 대표  
한 인 상

지난 4월에 있었던 교회 연차 대회에서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두 번 총회에 참석하셔서 한 번은 개인 비서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셨고 마지막 총회에서는 친히 단에 서서 간단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마지막 총회였습니다.

혼자서는 바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노약해진 육신을 일으켜,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신 그 위대한 지도자들은 단 앞에 서서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의 경우, 제대로 언어의 구사가 되지 않아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태버네클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업에 열심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였을 것입니다. 모든 신권 역원과 성도들은 물론 대회 기간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도 큰 감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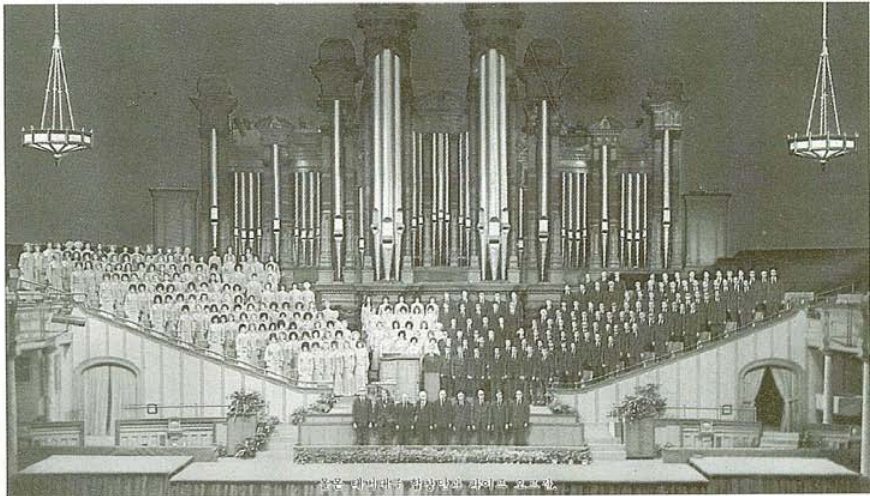
받았지만 대관장님과 부대관장님께서 이 짧은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고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두 거인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단상의 다른 연로하신 어른들의 움직임이 또 가슴에 뜨거움을 전하였습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언의 웅변으로 우리를 감동케 했습니다. 서로의 지팡이를 짚어 주고 부축하고 격려하는 움직임 하나 하나에서 우리는 찬사의 모습을 분명 보았습니다.

현재의 부족함이 너무도 두드러진 처지에서 나는 변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맞부딪쳐 싸우고자 하는 오늘인데도 그분들의 모습을 부러워했고, 그렇게 두터운 우정을 나눌 친구들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들의 발길이 늘 활력과 소망에 차도록 기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유럽 순회 공연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리허설 모습이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은 6월에 유럽 8개 도시에서 10회의 연주회를 갖는 제12차 순회 공연을 떠난다.

오클리 에스 이반스 태버네클 합창단장은 325명으로 된 합창단이 6월 7, 8일에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열리는 국제 음악제에서의 첫번 연주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여행 일정에는 6월 9일의 노르웨이의 오슬로, 6월 11일의 스웨덴 스톡홀름, 6월 12일의 핀란드 헬싱키, 6월 14일과 15일의 덴마크 코펜하겐, 6월 16일의 덴마크 알보그, 6월 18일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의 연주회가 포함된다.

마지막 연주회는 6월 20일 영국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갖는다.

이 공연으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 처음 선보이게 된다. 1955년과 1973년에 유럽 여행을 했을 때, 합창단은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독일, 스위스 및 불란서에서 노래를 불렀다.

합창단은 또한 브라질, 일본, 한국,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1893년 이래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가졌다.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자는 제럴드 오틀리 박사이다.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는 태버네클 연주자인 로버트 킨딕 박사와 존 록거스트 박사가 맡게 된다.

325명의 합창단원과 그들의 배우자가 많이 동행하며, 임원과 특별 손님들 비록해서 550여 명이 두 대의 전세 비행기편으로 베르겐에 도착하게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번 순회 공연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태버네클 합창단원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곡을 영어로 부르는 하지만, 합창단은 각국의 국가와 한, 두 가지 민족 음악을 그 나라의 언어로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럴드 오틀리 박사는 말했다.

\*

# 하와이 유학생 합창 발표회 한국 성도들 1등상 수상

Polinesian Cultural Center 아의 대형 극장에서는 하와이 유학생들의 불뽕은 합창 경연 대회가 열렸다. 3월 25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거행된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통가, 사모아,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그리고 미키(Micronesia) 등 8개국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학생들은 영예의 1등상을 차지하여 대형 트로피를 받았고 또한 부천 지부에서 유학온 임 승란 자매가 지휘자 상을 받았다.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에서 열리는 축제 기간중(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에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합창 경연 대회는 하와이 유명 대학의 음악 교수 8명이 Serious Song 부문과 Fun Song 부문으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였다. 한국 성도들은 Serious Song 부문에서는 "Lord I want be a Christian"을 불렀고 Fun Song 부문에서는 "밀양 아리랑"을 불렀서

대형 극장을 메운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연습 기간중에 매일 비가 와서 연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 수영 한국인 학생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한국인의 음악 재질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 학생들은 물론 하와이 라이에를 찾는 한국 성도들을 항상 친절히 보살펴 주는 민간인 사절 브래샤 박사 부부와 황 종섭 형제 부부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노변의 밤 모임을 자택에서 가졌다. 이 모임에 한국에서 제152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에 간 스테이크 부장들이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합창단 명단: 김 수영, 조 양호, 김 영석, 김 성기, 김 광운, 허 양희, 최 세일, 박 병근, 유 명구, 허 기욱, 송 인숙, 팽 영혜, 임 승란, 이 명희, 홍 성남, 최 선희, 윤 인자, 최 옥선, 장 근옥, 양 소자 이상 20명. \* 노년의 모임을 끝낸 후 함께 모인 성도들.



## 광주 스테이크 대회



광주 스테이크 대회 광경.

560여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광주 시내의 남도 예술회관에 모여 '82년도 전반기 광주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광주 스테이크는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30일에는 제1와드에서 아론 신권 소유자와 청년들이 준비한 신학연구원 중등부 퀴즈 대회를 가졌으며, 저녁 성인 모임에서는 계보 사업 및 신권과 가족 강화라는 주제로 신권 직원들의 발표를 듣는 모임을 가졌다. 31일 일요일 총회에서는 광주 스테이크 부장단과 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 그리고 한 인상 장로의 말씀이 있었다. 신권 지도자들은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다."(엘 34:32)고 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하였고,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신앙과 가족간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강조하였다. \*

## 서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

서 신학 연구원 제10회 졸업식 및 '82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3월 6일 신촌 서 신학 연구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생과 신입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김 창선 서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홍 무광 북 스테이크 부장, 김 차봉 서 선교부장 그리고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24명의 졸업생 중에서 영예의 우등생은 부평 와드 소속의 권 중순 자매와 주안 와드의 김 용임 자매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공로상은 김 두성 김포 지부장이 받았다.

이날 김 차봉 서 선교부장의 축사에 이어 이 도환 원장 서리의 말씀이 있었다. 이 원장 서리는 "교회 교육의 목적은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잘못, 죄악, 암흑, 거짓 전통, 그리고 헛된 철학과 불명료한 과학 이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식이 끝난 후 다과를 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신입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였다. 참석 인원 약 250여 명. \*

졸업자 명단: 권 중순, 김 두성, 김 경철, 김 영애, 김 용임, 김 춘자, 김 태완, 김 평숙, 신, 육선, 윤 영중, 윤 영화, 고 명한, 이 인선, 이 재원, 이혜열, 장 석천, 전 범기, 정 은혜, 한 현수, 이 두영, 정 우호, 최 환운, 정 광순, 권 용건

제10회 졸업생과 신권 지도자들.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대회 현장



에서 역원 지지를 묻는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

을 완성하도록 강조하였다. 4월 25일 일요일 총회에서는 이 호남 장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 박 래정 부장, 김 차봉 서울 서 선교부장 하 봉식 형제 등이 말씀하였다. 하 형제는 오랜 동안의 투병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고 단상에 서게 된 기쁨과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전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협회 어린이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합창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시온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한 성도로서 주님의 계명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 조상의 구원을 위한 계보 사업과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당부한 이 호남 장로는 우리가 지상에 오게 된 것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이므로 우리는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

1982년도 전반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4월 24, 25일 제7와드에서 한국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의 감리하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신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선교 사업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하여 그리고 계보 사업 등 서울 신전 건립을 앞두고 회원들이 준비해야 할 일에 관하여 강조하였다. 이 호남 장로는 다음 스테이크 대회 때까지 회원들에게 4대 프로그램

##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5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서울 제1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총관리 역원인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가 감리하였으며, 한국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가 참석했다.

5월 1일 신권 지도자 모임과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신권 소유자의 책임, 효과적인 임무 수행 방안, 시간 관리 및 신전 사업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5월 2일 일요일 총회에서 기꾸찌 장로는 김불대관장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권고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총관리 역원의 지지가 있었고,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의 제1보좌에 손 승은 형제, 제2보좌에 구 분

동 형제가 부름을 받았으며, 그동안 공석 중이던 스테이크 축복사에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한 조 병하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또한 새로운 고등 평의원으로 장 용섭, 김 홍운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와드 조직 개편으로 강 시영 형제가 춘천 와드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감독의 제1보좌에 김 정곤 형제, 제2보좌에 강 복철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번동 지부장에는 임 수빈 형제, 지부장의 제1보좌에 김 재필 형제, 제2보좌에 박 준욱 형제가 부름을 받았으며, 삼선 지부장에는 도 철 형제, 지부장의 제1보좌에 한 창복 형제, 제2보좌에 이 강석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대제사 4명과 장로 21명이 지지를 받고 성임되었다. \*

# 조 병하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축복사로 부름받음



지난 5월 2일,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에서 동 스테이크 축복사로 조 병하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조 형제는 성부 지부장, 5와드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를 역임했다.

음악에 조예가 깊은 조 형제는 이 광운 자매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 \*

# 구 본동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단 2보좌



같은 대회에서 동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은 구 본동 형제는 1963년 7월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된 이래 스테이크 서기를 비롯하여 교회의 많은 직책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도봉 와드 감독을 역임하고 고등 평의원으로 수고하던 중 이번에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

# 데이비드 시 버틀러 한국 서울 선교부 신임 선교부장



교회 선교사 과 산하의 연구원 책임자였던 41세의 데이비드 시 버틀러 선교부장은 웨인 스티븐스와 필리스 켄슨 버틀러의 아들로 유타주 옥든에서 출생했다. 버틀러 선교부장은 1968년 7월 1일에 카밀라 카터와 로건 신전에서 결혼했다. 7명의 자녀들은 그들이 선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버틀러 선교부장은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2년간 교편을 잡았다. 그는 유타주 파밍톤의 제 1와드의 유년대 대장과 가정 복음 교사이며, 와드 집행 서기, 와드 서기 및 장로 정원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1960~1963년에는 한국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마크 존슨과 카질 너피 카터의 딸인 버틀러 자매는 아이다호주 프레스톤에서 태어났다. 버틀러 자매는 방문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청녀회장의 보좌와 초등 협회 회장의 보좌로 그리고 상호부조회와 초등 협회 교사로 봉사해 왔다. \*